

특별기획

# “새만금 철도 노선 연장해야”

## 부안군, 민간투자 유치 등 위해 관광 레저용지와 연결 필요성 주장

정부가 지난달 제8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군산 대야~새만금 신항간(28.5km)간 새만금 철도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부안군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새만금홍보관)까지의 노선연장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11일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 후 수십년이 지난지만 아직까지 변변한 기반시설 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새만금 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조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레저 분야 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철도가 반드시 관광 레저용지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군은 “새만금 내부의 기반시설 중 도로계획은 내부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격자형(3X3) 도로망이 계획돼 있으나 철도는 군산



대야에서 새만금의 중간인 신흥만까지만 조성할 계획”이라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조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레저 분야 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철도가 반드시 관광 레저용지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또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만금 중간인 신흥만까지만 계획돼 있어 새만금 전체에 대한 파급효

과는 제한적인 것”이라며 “새만금 철도를 새만금 사업 부의 관광 레저용지까지 연장해 관광 레저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새만금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부안군은 “새만금 철도의 노선을 연장하면 향후 조성될 서해안 철도(군산~목포) 노선과 중복돼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군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내 게이트웨이(1km) 개발을 위해 올해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에 착공한다. 현재 새만금 홍보관과 함께 오는 2020년까지 간척사업 전반에 대한 역사·교육·연구를 위한 한 척사박물관 설립이 예정돼 있어 많은 관광객이 기대된다”고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김제시 예산확보·정책발굴 워크숍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금구 삼성생명연수원에서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제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가예산 담당 공무원이 순기별 로드맵 및 예산확보 활동에 대한 실질적 매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기에 대응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계획이며 국가예산 및 정책분야 등 최고 전문가를 초빙, 열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워크숍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규 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주요 특별강연을 준비하였다. ‘함께 그리는 새만금시대 김제비전’이란 주제로 이진식 시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진영권 前감사원 감사위원의 특강과 오종남 새만금 민간위원장의 특강에는 워크숍 교육참석자는 물론 관련부서 직원 및 부서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로 도약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발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박태갑 前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의 창의력 향상 교육과 새만금개발청 개발자문위원인 최원철 위원장의 관광개발 투자유치 전략, 박현규 전북도 국가예산담당장의 국가예산의 이해 및 확보전략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워크숍 참석 공무원들이 ‘김제의 미래, 우리의 이슈와 기회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분임토의를 하는 등 국가예산확보와 정책아이템 발굴을 위한 뜻깊은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부안수협, 지난해 결산안 의결

부안수협협동조합(조합장 김진태)이 어민을 위한 조합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부안수협은 지난 “지난달 18일 열린 제54기 정기 대의원회 결과, 1,495백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2015년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수협은 “2015년도 예탁금 및 대출금 증대를 통한 사업성장에 매진한 결과 잔액기준으로 예탁금 5,718억 원과 대출금 4,969억 원의 영업실적을 달성하며, 당기순이익 1,495백만 원을 시현함으로써 출자배당 3억9,022만 원, 이윤공과배당 7,580만 원을 각각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진태 조합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 정책강화 및 심사강화로 규제 받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상호금융 사업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상호금융 사업기반을 확고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룬 것에 대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김제보건소 어르신 치아 불소도포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읍·면·동 관내 경로당 619개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있다.

불소도포는 치아에 직접 불소를 발라 주는 것으로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으며 충치를 발생시키는 세균들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충치균 억제 및 치아 강화, 손상 받은 치아 회복 등 시린 이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불소도포를 하는 것이 좋다.

치아는 식생활을 위한 중요 신체기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53%가 저작불편을 호소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보다 70세 이상에서 높았다.

김제시보건소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대상으로 불소도포, 올바른 칫솔질 방법, 틀니관리법,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등 경로당 구강보건사업을 운영 하여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구강관리수준 및 구강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마실축제가 제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축제콘텐츠 부문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했다.

## 부안마실축제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 전국 2000여개 축제 중 선정

이화 세상 벗남네야 북 반으러 마실가세 부안마실축제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 명성이 입증됐다.

부안마실축제가 최근 서울시장 대평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축제콘텐츠 부문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최된 전국

2000여 개의 축제 중 관광 축제, 경제, 예술·전통부문 등 4개 분야 우수 축제를 각각 선정해 시상한다.

이에 따라 부안마실축제는 지난 2012년(공로부문)과 2013년(공로부문)에 연속 수상에 이어 이번 대상 수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부안마실축제는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부안에서 매년 5월 주인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축제다.

올해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3

일 간 부안읍을 중심으로 부안군 전역에서 ‘이화 세상 벗남네야 북 반으러 마실가세(부재-춤추는 마실 흥겨운 부안)’를 주제로 제4회 부안마실축제가 개최된다.

부안군은 올해 부안마실축제를 관광객의 ‘부대만(扶來滿福·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드린다)’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부안의 ‘흥’을 킬러콘텐츠로 표현해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나고자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축제 준비에 만전의 집중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격포 채석강에서 고사포해변까지 봄맞이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 및 ‘그린포인트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수거

### 부표·스티로폼 등 약 3t 규모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가 유관기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격포 채석강에서 고사포해변까지 봄맞이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 및 ‘그린포인트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변산반도 사무소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육군 8099부대, 정읍보호관할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해병대부안군지회 등 총 226명이 참여하였으며 부표, 스티로폼, 페그 그물 생활쓰레기 등 약 3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성상별 수거량은 부표 1.1t, 스티로

폼 0.9t, 페그 그물 0.6t, 생활쓰레기 0.4t 순이었으며 특히, 스티로폼은 전년대비 0.3(33.3%)이 증가했다.

이는 2015년 변산반도 국립공원 전체 쓰레기 수거량은 95t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0t(52.6%)이 해양쓰레기이고 재활용은 24t(25.3%), 육상쓰레기는 21t(22.1%)이다.

김병채 사무소장은 “해양쓰레기는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의 크나큰 주범으로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속적인 수거활동을 펼쳐 깨끗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김제시, 여행박람회 참가

### 지평선영농조합법인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

김제시는 10일부터 13일까지(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평선영농조합법인’이 참가하여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관내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하였다.

김제평야에서 재배되는 전국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쌀과 잡곡류, 누룽지 등 농산물 가공식품 등이 주를 이루었다.

행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전단지과 지평선 쌀과 누룽지를 배부하는 등 농·특산물 구매 촉진과 지평선 공동브랜드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다.

이번 행사를 위해 김제시 유동식품과 직원들과 지평선 영농조합법

인 회원들이 합동하여 판매 및 홍보에 참여 하였으며, 또한 각종 행사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판로개척에 노력을 기울여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판산 지평선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도농교류의 장으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데 민관이 합동하여 일선인원인하는 모습이 쌓인다면 판매 농가들에겐 큰 관심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은엽 유통식품과장은 “내 고장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민관이 합동하여 일선인원인하는 모습이 쌓인다면 판매 농가들에겐 큰 관심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없음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혜택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병주 GIFT SET

GIFT SET 4.0: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0: [750ml 2ea, 잔 1ea, 오뜨네/12%]

GIFT SET 3.0: [750ml 1ea/12%]

GIFT SET 4.0: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0: [375ml 5ea/13%]

GIFT SET 6.0: [500ml 정병 2ea/12%, 복분자 1ea/13%, 잔 1ea, 오뜨네]

GIFT SET 7.0: [375ml 2ea/13%]

부안강산 병주 Premium Obdi Wine

TEL : 063-594-9960  
www.gangsanwine.com